

한국판 공격자 동일시 척도(K-IAS)의 타당화

임 혜 선 김 정 윤 홍 혜 영[†]

명지대학교 박사과정

명지대학교 교수

본 연구에서는 Lahav 외 연구진(2019)이 개발한 공격자 동일시 척도(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Scale: IAS)를 한국판으로 타당화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원척도의 번역 및 역번역 후 동등성 평정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번역을 완성하였다. 이후 대인 간 폭력 경험이 있는 전국의 대학생 총 200명을 수집하여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척도의 4개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K-IAS는 총 19문항으로, 하위요인은 모두 4개이며, 각각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 ‘가해자의 경험 흡수’,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 ‘주체성 대체’로 명명되었다. 다음으로 대인 간 폭력 경험이 있는 전국의 대학생 총 317명을 수집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K-IAS의 요인 구조는 적합하였으며, 양호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K-IAS와 다른 척도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증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K-IAS가 타당한 도구로 확인되었다. 추가로 단일폭력집단과 중복폭력집단 간에 K-IAS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공격자 동일시, 대인 간 폭력, 방어기제, 척도 타당화

[†] 교신저자 : 홍혜영, 명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국제관 4715호

Tel : 02-300-0899, E-mail : hyhong@mju.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대인 간 폭력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대인 간 폭력은 “대인 관계에서 물리적인 강제력이나 힘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부상, 사망, 심리적 위해, 성장저해 혹은 박탈을 가져오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으로 정의한다(Krug et al., 2002). 대인 간 폭력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약 79%가 과거에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직장폭력, 군대폭력을 비롯하여 폭력을 한 가지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류정희 외, 2017). 또한, 국내에서 2020년에 발생한 대인 간 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404,03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최근 3년간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인구는 1,150명으로 추정되었다(통계청, 2021). 이처럼 한국 성인은 전 생애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고, 심각한 경우 폭력 범죄 피해에 노출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와 의료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 부담을 준다(Krug et al., 2002).

대인 간 폭력은 한 개인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인 간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 문제, 자살, 공격성 등의 행동 문제, 대인관계 문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성격장애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이정숙, 2009; 김영윤, 2014; 김은희, 이인혜, 2016; 김준범, 2019; 정한별, 심은정, 2022). 특히 대인 간 폭력 경험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복합외상을 초래하여 성격 구조의 변화를 일으킨다(안현의, 2007). 대인 간 폭력 경험자는 자기 인식의 변화와 가해자에 대한

지각변화가 일어나 가해자를 이상화하거나 왜곡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인 간 폭력을 반복해서 피해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특징을 보일 수 있다(안현의, 2007; Herman, 1992; Pelcovitz et al., 1997).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대인 간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후에도 중복적으로 폭력 피해를 경험하여 재희생화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기에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후에 가정폭력, 또래폭력, 지역사회폭력, 데이트폭력, 군대폭력과 같은 다른 폭력에 중복폭력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다른 폭력 피해 경험도 중복폭력 피해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범, 2019; 김재엽 외, 2019; 이윤연, 장현아, 2017; 조정은, 이자영, 2022; Cyr et al., 2013; Finkelhor et al., 2007; Widom et al., 2008). 이러한 중복폭력 피해는 다른 유형의 폭력 피해에 취약하게 하고, 심리·정서적인 부적응을 심화시키며, 자살의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Arseneault, 2017; Cyr et al., 2013; Finkelhor et al., 2007).

반대로 여러 연구에서 대인 간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폭력 가해 및 범죄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류정희 외, 2017; Widom & Maxfield, 2001). 아동학대를 경험한 사람이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친밀한 관계 폭력에서 가해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류정희 외, 2017; 박미옥, 조영주, 2014; 전옥희, 2012; 조민경, 조한익, 2019; Daisy & Hien, 2014). 또한, 대인 간 폭력 경험은 원가족 내에서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부모가 다음 세대에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형태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엽 외, 2014; 이주연, 2021).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대인 간 폭력이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폭력이 대물림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대인 간 폭력 경험은 상담 및 치료의 예후가 좋지 못할뿐더러 변화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이지민, 홍창희, 2008; Courtois, 2008) 대인 간 폭력을 예방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 학자들은 대인 간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기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경은, 유영권, 2017; 전옥희, 2012; Lahav et al., 2019). 대인 간 폭력 피해자는 살아남기 위해서 가해자의 반응에 민감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살피고, 맞추는 반응을 하면서 상호작용(Howell, 2014; Lahav et al., 2019)을 한다. 게다가 대인 간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가해자의 폭력을 사랑과 접촉으로 이해하여 병리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Lahav et al., 2019; Lahav, 2023; Prior, 1996/2016). 이 과정에서 대인 간 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가해자의 경험을 취하면서 폭력 피해 이후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교대로 반복하게 된다. 결국 대인 간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는 완전히 구분할 수 없게 된다(김재엽 외, 2019; Prior, 1996/2016). 이는 대인 간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적 기제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외에서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로 공격자 동일시가 연구되고 있다. 공격자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는 정신

분석문헌에서 Ferenczi(1933)가 설명한 개념으로 대인 간 폭력 경험자가 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적 위협에 직면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측면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다차원적인 과정이다(Lahav et al., 2019). 대인 간 폭력 피해자가 단순히 가해자의 공격성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과 가해자를 향한 지각 세계가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자 동일시는 대표적으로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과 같은 가해자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기제로 가해자가 보복하고, 가해자의 관심과 사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방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Amir, 2016; Frankel, 2002; Lahav, 2021; Lahav, 2023; Melsky, 2004).

Ferenczi(1933)는 어린 시절에 심각한 학대를 경험한 성인 환자의 초기 기억을 탐구하면서 어린아이가 주양육자에게 고립되고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가해자와 공격자 동일시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이는 처음에 가해자의 폭력에 저항하지만 지속적으로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가해자의 특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주체성의 일부나 전체를 가해자의 주체성으로 변형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가해자에게 점점 민감해지고, 가해자의 내면으로 들어가 가해자의 의도를 알아내며,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내면 안에서 학습하여 가해자를 만족시킨다. 그리고 아이는 가해자의 병리적인 욕망과 공격성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경험하여 공격성을 안팎으로 가한다(Ferenczi, 1933; Frankel, 2002; Frankel, 2004; Lahav et al., 2019). 결과적으로 공격자 동일시는 아이에게 내면화되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대인관계패턴과 성격 구조에 악영향을 준다

(Howell, 2014).

공격자 동일시의 가장 파괴적인 측면은 아이가 폭력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가해자를 좋은 내적 대상이라고 계속 느끼으로써 폭력을 사랑, 보살핌과 돌봄으로 이해하여 다른 관계에서 재회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Amir, 2016; Lahav et al., 2019).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대인 간 폭력을 경험한 성인은 공격자 동일시를 통해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관계에서의 재피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ahav, 2023; Lahav et al., 2022). 다른 양상으로는 대인 간 폭력 피해자가 공격자 동일시를 통해 타인을 가해하는 행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 간 폭력 피해자가 공격자 동일시를 통하여 공격성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통제 하에 있도록 함으로써 힘을 느끼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Lahav, 2021; Lahav, 2023; Lahav et al., 2022; McWilliams, 1994/2008). 결국 대인 간 폭력 피해자는 자신과 가해자에 대한 관점이 왜곡되어 대인 간 폭력 경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고, 죄책감, 외상후 스트레스증상, 우울, 섭식 증상, 자해와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Amir, 2016; Lahav et al., 2019; Lahav, 2021; Rosenberg et al., 2023).

이렇듯 공격자 동일시는 대인 간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패턴을 설명하고, 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기제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정신분석이론과 임상에서 관심을 받아오고 있으나 실증 연구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Lahav 외 연구진(2019)은 이론과 임상에서만 활용된 공격자 동일시의 개념을 실증 연구로 검증하고, 상담 및 치료의 기제로 밝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격자 동일시 척도를 개발하였다. Lahav 외 연구

진(2019)은 타당화의 과정을 통해 대인 간 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학생이 공격자 동일시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공격자 동일시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공격자 동일시 척도는 ‘가해자의 경험 흡수(Adopting the Perpetrator’s Experience)’,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Identifying with the Perpetrator’s Aggression)’, ‘자신의 주체성을 가해자 주체성으로 대체(Replacing one’s own Agency with that of the Perpetrator)’,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Becoming Hypersensitive to the Perpetrator)’과 같이 4가지로 구성되었다.

‘가해자의 경험 흡수’는 가해자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요구, 욕구, 감정이 가해자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가해자의 관점이 옳다고 인식하는 것, 가해자에 대한 배려, 가해자가 옳았다고 느낌 등을 포함한다.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는 가해자의 공격성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가해자만큼 공격적일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격적일 수 있다는 믿음, 가해자처럼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등을 반영한다. ‘자신의 주체성을 가해자 주체성으로 대체’는 자신의 주체성을 가해자의 주체성으로 대체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 등의 내용을 반영한다.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은 가해자의 생각, 느낌, 필요에 과도하게 민감한 것을 말하며, 가해자의 생각을 읽거나 가해자가 필요로 하거나 느끼는 것을 파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Lahav et al., 2019).

국내 연구에서는 공격자 동일시의 개념을 설명하거나 대인 간 폭력 경험과 재피해의 관계, 폭력 피해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공격자 동일시가 이론적으로 연관된다는 정도로만 연

급되고 있다(김재엽 외, 2010; 김해란, 2007; 노태용 외, 1995; 한성희, 2002). 공격자 동일시와 비슷한 척도로는 이화방어기제의 하위요인인 동일시(김재은 외, 1991)가 있지만, 이는 전반적인 동일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적인 동일시와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동일시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동일시의 대상자가 포괄적이다. 공격자 동일시는 방어적인 동일시이며, 대상자가 가해자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화방어기제척도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듯 국내에서는 공격자 동일시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미흡하므로 공격자 동일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ahav 외 연구진(2019)이 개발한 공격자 동일시 척도를 한국 문화에 맞게 타당화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공격자 동일시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고,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준거타당도, 증분타당도를 활용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공격자 동일시와 해리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격자 동일시는 넓은 의미에서 해리성 심리적 기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리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Amir, 2016; Howell, 2014). 즉, 공격자 동일시는 대인 간 폭력 경험자가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주체성으로부터 분리를 하면서 해리 과정이 일어나고, 그 빈자리에 가해자의 경험을 채움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이 가해자의 주체성으로 대체가 된다(Amir, 2016; Frankel, 2002; Lahav et al., 2019). 선행 연구에서 대학생의 공격자 동일시와 해리 간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Lahav et al., 2019;

Lahav,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격자 동일시의 수렴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자 동일시와 해리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공격자 동일시와 공감의 상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인 간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공격자 동일시를 통해서 가해자의 감정에 과민해지고, 가해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특성을 보인다(Lahav et al., 2019). 공격자 동일시에서 가해자의 감정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특성은 공감과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할 수 있는데 두 개념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동일시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경계가 없이 일어나며, 공감은 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이 구별되고, 경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김영란, 2004). 다시 말해서 대인 간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정서적 반응이 민감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손상되어 있으나(김환, 한수미, 2015), 두 개념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인 간 폭력 경험한 사람의 진정한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두 개념을 구별하고자 하였으며, 공격자 동일시는 공감과 상관이 없거나 낮은 상관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측하였다.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공격자 동일시와 불안,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공격자 동일시와 불안, 공격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설명된 바 있다. 공격자 동일시는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안과 깊은 연관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인 간 폭력 경험자가 공격자 동일시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위협감, 두려움뿐만 아

나라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림으로써 존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경험한다고 설명한다. 공격성도 공격자 동일시와의 관계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인 간 폭력 경험자는 공격자 동일시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반복하는데, 가해자의 역할로 있을 때는 자신보다 약한 대상에게 공격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취약성과 무기력을 다룬다고 논의되고 있다(Amir, 2016; Ferenczi, 1933; Lahav, 2021; Lahav et al., 2022; Prior, 1996/2016). 특히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가해자에게 공격하는 것이 두려워서 분노를 억제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성을 표출한다(이나영 외, 2017; 이자영, 2021). 결국 대인 간 폭력 경험자는 공격자 동일시 과정에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 행동을 하는 폭력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격자 동일시와 불안, 전위된 공격성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공격자 동일시와 불안, 전위된 공격성이 정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분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자 동일시와 비슷한 구성 개념인 해리를 제외하더라도 공격자 동일시가 불안, 전위된 공격성에 추가적인 설명량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추가로 단일폭력집단과 중복폭력집단에서 공격자 동일시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인 간 폭력 피해 경험자는 중복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심리적으로 더 취약해진다(김재엽 외, 2010; 김준범, 2019).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중복폭력과 공격자 동일시의 연관이 있다고 설명한다(노태용 외, 1995; Lahav et al., 2019). 원저자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일폭력집단과 중복폭력

집단을 구분하여 공격자 동일시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중복폭력을 경험할수록 단일폭력 경험자보다 공격자 동일시가 더 높은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Lahav et al., 201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단일폭력집단과 중복폭력집단 간에 공격자 동일시의 차이를 검증하여 한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Lahav 외 연구진(2019)이 개발한 공격자 동일시 척도를 한국 문화를 고려하여 대인 간 폭력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번안하고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준거타당도, 충분타당도의 검증을 통해 타당화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이론에서 설명된 공격자 동일시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여 실증 연구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담 및 치료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대인 간 폭력 경험자의 심리적 기제를 초기에 사례개념화를 하고, 이를 개입함으로써 심리적 후유증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인 간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판 공격자 동일시 척도의 요인 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판 공격자 동일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적절한가?

연구문제 3. 단일폭력집단과 중복폭력집단에서 한국판 공격자 동일시의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인 간 폭력 경험이 있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인 간 폭력 경험과 공격자 동일시는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Ferenczi, 1933; Lahav et al., 2019)를 바탕으로 대인 간 폭력 경험이 있는 자를 연구 참여자로 제한하였고, 원저자의 연구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총 2번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총 200명을 모집하였고,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을 위해 총 317명을 새롭게 모집하였다. 설문지는 자기 보고식 설문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설문에서는 약 10분,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설문에서는 20분정도 소요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수집된 자료는 남자 80명, 여자 120명으로 구성되었고, 평균연령은 22.92세($SD=2.25$)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수집된 자료는 남자 102명, 여자 215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3.03세($SD=2.31$)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측정 도구

대인 간 폭력 경험 체크리스트

연구 참여자의 대인 간 폭력 경험을 구분하고,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Foa 등(1997)이 개발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진단 척도 중 외상 사건 유형에 관한 12문항을 기초로 장진이(2010)가 대인 간 외상 경험을 세분화하여 추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건의 유형은 자연재해, 사건, 사고, 질병,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 간 폭력 경험에 해당되는 신체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만 포함하였다. 이 척도는 본인이 경험한 폭력 유형에 중복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대인 간 폭력 유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공격자 동일시 척도(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Scale: IAS)

Lahav 등(2019)이 개발한 공격자 동일시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IAS는 총 23문항으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해자의 경험 흡수(Adopting the Perpetrator’s Experience)’ 9문항(문항 예: 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의 관점이 옳다고 느낀다),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Identifying with the Perpetrator’s Aggression)’ 5문항(문항 예: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가해한 사람만큼 공격적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주체성을 가해자 주체성으로 대체(Replacing one’s own Agency with that of the Perpetrator)’ 5문항(문항 예: 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Becoming Hypersensitive to the Perpetrator)’ 4문항(문항 예: 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낸다)으로 이루어졌다. IAS는 본래 11점 Likert척도(0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0점: 매우 동의한다)로 평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장승민, 2015)의 제안에 따라 7점 Likert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척도점수를 변경하여 측정하였다¹⁾. Lahav 등(2019)의 연구에서 보고한

1) 장승민(2015)에 의하면, 탐색적 요인분석의 대상이 되는 Likert 척도를 구성할 경우 응답반응 개수를 6점 또는 7점 이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지만, 문항 응답선택지가 많을 경우 응답자가 서로 다른 반응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구분할 수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대인 간 폭력 유형

변인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n=200)	(n=317)
		빈도(%)	빈도(%)
인구 사회학적 변인			
성별	남자	80 (40)	102 (32.2)
	여자	120 (60)	215 (67.8)
연령	<i>M</i> =22.92, <i>SD</i> =2.25		<i>M</i> =23.03, <i>SD</i> =2.31
	19세~23세	135 (67.5)	190 (59.9)
	24세~27세	54 (27)	115 (36.3)
	28세~30세	11 (5.5)	12 (3.8)
대인 간 폭력 유형(중복선택)			
신체 폭력	가정 내 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의한 신체폭행	73 (36.5)	112 (35.3)
	학창시절 또래에 의한 신체적 폭행	51 (25.5)	79 (24.9)
	데이트 중 애인에 의한 신체적 폭행	6 (3)	18 (5.7)
	모르는 사람에 의한 범죄로 인한 신체적 폭행	10 (5)	11 (3.5)
성적 폭력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행	5 (2.5)	11 (3.5)
	가족에 의한 성폭행	2 (1.0)	5 (1.6)
	친척이나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행	7 (3.5)	13 (4.1)
	18세 이전에 5살 이상 많은 사람과 성적인 접촉	10 (5.0)	31 (9.8)
정서적 폭력	부모에 의한 심한 욕설, 협박, 무시, 무관심	53 (26.5)	84 (26.5)
	가정 내 부모, 형제 자매간에 반복적인 싸움	75 (37.5)	125 (39.4)
	학창시절 또래에 의한 괴롭힘, 집단 따돌림, 협박	112 (56)	186 (58.7)
기 타 (대인 간 폭력 경험)		24 (12)	5 (1.6)
중복폭력 경험 여부			
단일폭력		93 (46.5)	132 (41.6)
중복폭력(2가지 이상)		107 (53.5)	185 (59.3)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는 .93, 자신의 주체성을 가해자 주체성

으로 대체가 .69,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은 .72를 나타냈으며, 전체 신뢰도는 .91이었다.

있는지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응답 범주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 신뢰도의 증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리커트 문항의 응답 범주 개수는 5~7개가 권장된다고 말한다.

한국판 공격자 동일시 척도(Korean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Scale: K-IAS)

Lahav 등(2019)이 개발한 공격자 동일시 척도를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로 변안 및 타당

화 하여 사용하였다. K-IAS는 총 19문항으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 6문항(문항 예: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가해한 사람만큼 공격적이라고 생각한다), ‘가해자의 경험 흡수’ 5문항(문항 예: 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의 관점이 옳다고 느낀다),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 4문항(문항 예: 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낸다), ‘주체성 대체’ 4문항(문항 예: 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으로 이루어졌다. 본 척도는 7점 Likert형 척도로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92,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 .90, 가해자의 경험 흡수 .85,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 .78, 주체성 대체 .72로 나타났다.

해리 척도(Dissociative Experience Scale:

DES)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Bernstein과 Putnam (1986)이 개발한 해리경험척도를 박제민 등(1995)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 한 한국판 해리경험척도를 사용하였다. DES는 4개의 하위요인(기억장애-주체성 변화 5문항, 해리적 몰입 6문항, 이인증-비현실감 14문항, 주의분산 3문항)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DES-II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11점으로 척도화 하였으며(0% 경험함은 0점~100% 경험함은 10점), 본 연구에서도 DES-II의 채점 방식을 따랐다. 박제민 등(1995)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98, 기억장애-주체성 변화 .90, 해리적 몰입 .90, 이인증-비현실감 .96, 주의분산 .79로 나타났다.

공감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Davis(1980)가 개발하고 박성희(1994)가 한국어로 번안한 대인관계반응지수를 사용하였다. IRI는 4개의 하위요인(관점취하기 7문항, 상상하기 7문항, 공감적 관심 7문항, 개인적 고통 7문항)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상상하기’와 ‘개인적 고통’은 사용하지 않고(김환, 한수미, 2015; 김윤희, 김진숙, 2017), ‘관점 취하기’와 ‘공감적 관심’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형 척도로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71, 관점취하기는 .67, 공감적 상상은 .70을 나타냈다.

불안 척도(Brief Symptoms Inventory-18: BSI-18)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Derogatis(2001)가 SCL-90-R을 단축형으로 개발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검사를 박기쁨 등(2012)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심리적 부적응의 수준을 측정하며, 4개의 하위요인 (불안 4문항, 공황 3문항, 우울 6문항, 신체화 5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BSI-18의 전체 문항 중 공격자 동일시와 관련이 있는 불안의 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Likert형 척도로서 0점(전혀 없다)부터 4점(아주 심하다)으로 평정한다. 박기쁨 등(2012)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불안은 .81을 나타냈다.

전위된 공격성 척도(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DAQ-K)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Denson 등(2006)이 개발하고 이하나(2009)가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분노반추 10문항, 전위된 공격행동 8문항, 보복계획 9문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Likert형 척도로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한다. 이하나(2009)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9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95, 분노반추 .93, 전위된 공격행동 .92, 보복계획 .92를 나타냈다.

연구 절차

문항 번역

우선 공격자 동일시 척도(IAS)의 개발자 중 한 명인 Yael Lahav에게 번안 및 타당화 작업을 허락받은 후 척도의 번안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인 상담심리전문가 1인, 상담심리 박사과정생 1인이 1차로 문항을 번안하였다. 다음으로 영어권 국가에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이중 언어자 1인의 검토를 거쳐 1차 번역본을 수정하였고, 임상심리전문가 1인에게 내용을 검토받았다. 이후 이중 언어자 1인에 의해 번역본에 대한 역번역 과정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상담심리학 박사 1인 및 이중언어자 2인에 의해 원척도의 번역본 및 역번역본에 대한 동등성 평정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 2인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여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의미 전달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자들의 검토를 거친 후 상담심리학 교수 1인에게 최종 감수

를 받아 한국판 공격자 동일시 척도의 번안을 완성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6.0과 AMOS 21.0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수집된 표본 200명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수집된 표본 317명을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문항분석을 통해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SPSS26.0을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셋째,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K-IAS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요인분석 방법으로 주축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과 사각회전(Promax)방식을 채택하였다. 넷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AMOS21.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K-IAS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여섯째, K-IAS의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K-IAS와 관련 변인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중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일폭력집단과 중복폭력집단에서 K-IAS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

문항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수집된 표본 200명

을 대상으로 문항 분석을 실시하여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의 왜도의 절대값은 .10~1.02, 첨도의 절대값은 .14~.93을 나타내어,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Curran et al., 1996). 또한, 각 문항의 평균이 극단치를 보이거나, 표준편차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문항의 양호도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는데(탁진국, 2007), 본 연구에서는 평균이 1.5 혹은 6에 가까운 극단적인 값을 보이는 문항은 없었으며, 표준편차가 .7이하인 문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문항-총점 간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문항의 양호도를 저해하는 .3이상의 상관을 보이지 않거나 .8이상의 상관을 보이는 문항과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가 상승하는 문항이 있는지 살펴보았다(장승민, 2015). 그 결과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 상 양호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없었으나, 제거 시 내적 합치도가 상승하는 문항이 있었으며, 해당 문항인 5번 문항(“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 앞에 있으면 위협감이 들어서 자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낀다”)과 12번 문항(“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에게 신경을 쓴다”)을 삭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수집된 표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신뢰할 만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적절한 표본의 크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대략 200명 이상이거나 측정변수와 사례수의 비율이 5대 1이상이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기준(탁진국, 2007)을 바탕으로 표본수를 결정하였다.

문항 분석을 통해 문항 제거 후 남은 문항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고자 KMO 측정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KMO 측정값은 .6이상이거나 1에 가까울수록 요인분석에 적합하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경우 .05미만의 경우 적합하다(김계수, 2010). 본 연구에서의 KMO의 측정값은 .891이었고, $\chi^2=2099.699(p<.000)$ 로 표본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Kaiser(1960)가 제안한 고유값이 1 이상에 해당되는 요인 수, 누적분산비율, Cattell(1966)의 스크리 도표(Scree Plot)상 기울기 및 평행분석, 원척도의 요인 개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제안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결정을 내리면 된다(김수영, 2016). 본 연구에서는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5개였고, 스크리 도표의 기울기는 2번째 요인 이후부터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평행분석 결과 2요인 구조를 제안하였고, 원척도에서는 4요인 구조를 나타냈다. 각 요인 개수 별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요인의 요인구조는 요인 5에서 한 개의 문항으로만 구성되었다. 모형의 간명성 및 추정의 정확성을 고려했을 때 한 요인 당 최소 3개 이상의 문항이 필요하다(김수영,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5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2요인 구조는 이론적으로 공격자 동일시의 세밀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원척도와 동일한 4요인 구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척도의 이론적 근거 및 연구자의 이론적 판

표 2. 한국판 공격자동일시 척도(K-IAS)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공통 분산
			1	2	3	4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	21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가해한 사람과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	.91	-.15	-.05	.06	.64
	18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가해한 사람만큼 공격적이라고 생각한다.	.85	-.06	.15	-.10	.72
	23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가해한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느낀다.	.78	.19	-.06	.00	.77
	20	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만큼 자신도 공격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76	-.13	-.23	.23	.50
	22	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과 동일시한다.	.73	.16	.05	-.08	.71
	19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가해한 사람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64	.18	.03	.03	.65
가해자의 경험 흡수	3	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의 관점이 옳다고 느낀다.	-.17	.89	-.07	.10	.57
	14	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이 옳았다고 느낀다.	-.06	.87	-.03	.04	.63
	13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해한 사람을 이해한다.	.13	.65	.05	-.00	.59
	16	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과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24	.58	-.00	.07	.60
	17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의 욕망을 이해한다.	.26	.53	.16	-.19	.61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	7	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낸다.	.07	-.04	.85	-.01	.59
	4	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	-.15	.15	.62	-.00	.37
	8	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이 언제 위협적인 행동을 할지 알 수 있다.	-.07	-.00	.56	.13	.41
	6	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의 필요나 기분을 알아챈다.	.03	-.18	.56	.33	.47
주체성 대체	10	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01	.06	.06	.77	.52
	11	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느낀다.	.02	.11	.08	.58	.48
	1	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 앞에 있으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05	-.08	.10	.42	.29
	2	때로는 사람들의 필요와 욕망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의 필요와 욕망과 비슷하다.	.09	.23	-.03	.40	.36
Eigen Value (고유값)			7.77	2.18	1.36	1.18	
Variance Explained (설명변량)			40.90	11.48	7.16	6.19	
Total Variance Explained (누적설명변량)			40.90	52.38	59.54	65.73	

KMO=.891, Bartlett's $\chi^2=2099.699(p=.000)$

단에 근거하여 4요인 구조를 채택하였다.

최종문항을 결정할 때 연구자의 판단 및 이론적 근거와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문항을 삭제할 수 있다(김계수, 2010). 4요인 구조에서 각 요인에 해당하는 최종 문항을 결정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4이하인 경우, 하나의 문항이 두 요인 이상에 .4를 넘는 요인부하량을 갖거나, 요인부하량의 차이가 .1을 넘지 않을 경우와 같은 교차 부하(Cross Loading)를 보이는 경우(송지준, 2015)에 문항을 삭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4이하를 보이는 문항인 9번 문항(“사람들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이 없다고 느낀다”)과 15번 문항(“사람들은 공격행동을 할 때 어떠한 쾌락을 느낀다”)을 삭제하였으며, 교차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은 없었다. 문항 삭제 이후 다시 요인구조 행렬을 재산출하였고, 요인 구조는 이전과 동일한 4요인을 나타냈다. 또한,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40~.91을 나타냈으며, 누적설명량은 65.73으로 산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 이상을 나타내고, 요인구조의 누적설명량은 60이상인 경우 요인구조와 문항이 적절하다는 Hair 등(2006)의 제안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요인구조와 모든 문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K-IAS의 요인구조를 19문항 4요인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고 자세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하위요인을 원척도의 구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요인 1은 총 6문항으로 가해자의 공격성을 내재화하여 자신의 공격성으로 경험하는 것을 측정한다. 이는 원척도에서 요인 2인 ‘Identifying with the Perpetrator’s Aggression’에 해당되며, 22번 문항(“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과 동일시한다”)을 제외한 문항 모두가 원척도의 ‘Identifying with the Perpetrator’s Aggression’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요인 1에 대한 요인명을 원척도의 요인명과 문항 내용을 참고하여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총 5문항으로 가해자의 생각, 감정, 행동, 욕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측정한다. 원척도에서 ‘Adopting the Perpetrator’s Experience’의 문항으로 구성됨에 따라 원척도 요인명 및 문항 내용을 참고하여 ‘가해자의 경험 흡수’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총 4문항으로 가해자의 경험을 과민하게 느끼고, 알아채는 것을 측정한다. 이는 원척도에서 ‘Becoming Hypersensitive to the Perpetrator’ 요인에 속하며, 원척도와 동일한 문항 내용이 구성되었다. 하여 요인 3도 원척도 요인명을 참고로 하여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4는 총 4문항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가해자의 주체성으로 대체된다는 내용을 반영한다. 이는 원척도에서 요인 3인 ‘Replacing one’s own Agency with that of the Perpetrator’에 해당되며, 2번 문항(“때로는 사람들의 필요와 욕망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의 필요와 욕망과 비슷하다”)을 제외하고 문항 내용이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따라서 요인 4의 요인명은 해당 원척도 요인명을 고려하여 ‘주체성 대체’로 명명하였다.

신뢰도 분석

K-IAS의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하위요인 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요인 1인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는 .91, 요인 2인 ‘가해자의 경험 흡수’는 .87, 요인 3인 ‘가해자를 향한 과민

성'은 .77, 요인 4인 '주체성 대체'는 .71를 나타냈다.

확인적 요인분석

317명을 새롭게 표집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4요인 19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IAS의 모형적합도는 [$\chi^2=422.201(p<.001)$, TLI=.897, CFI=.912, RMSEA=.77, SRMR=.064]을 나타냈다. TLI와 CFI는 .90이상, RMSEA와 SRMR은 .05~.08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된다(Hu & Bentler, 1999). 따라서 K-IAS의 4요인 구조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수 있으나 수정지수와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측정오차 간 상관을 허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이순목 외, 2016)에 따라서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자세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측정오차 간에 상관이 높은 이유는 측정 오차 간의 문항 내용이 비슷하여 상관이 크게 나올 수 있다(김수영, 2016). 수정지수를 살펴본 결과, 문항 내용이 비슷한 18번("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 앞에 있으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과 19번("때로는 사람들의 필요와 욕망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의 필요와 욕망과 비슷하다"), 문항 7번("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의 관점이 옳다고 느낀다")과 8번("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이 옳았다고 느낀다")의 오차 항간 공분산의 수정지수가 각

각 18.69와 34.45로 높게 나타나, 각각의 측정 오차항의 공분산을 연결한 수정모형의 검증을 추가하여 모형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검증한 결과, 수정 4요인 모형의 모형적합도가 향상되어 수정 4요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chi^2=365.857(p<.001)$, TLI=.916, CFI=.930, RMSEA=.070, SRMR=.063). 또한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채택한 수정 4요인 모형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동일한 총 19문항의 4요인구조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2를 통해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44~.85를 나타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18번 문항과 19번 문항이 .44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며, 두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5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고 있어 해당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설명력의 기준인 .50이상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우중필, 2012). 또한, K-IAS의 전체 척도와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및 하위요인끼리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표 4에서 보인 바와 같이 전체 척도 및 하위요인 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신뢰도 분석

K-IAS의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를 나타냈다.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 .90, 가해자의 경험 흡수 .85, 가해자를 향한 과민

표 3. K-IAS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결과 (N=317)

모형	χ^2	df	TLI	CFI	RMSEA	SRMR
4 요인	422.201	146	.897	.912	.077	.064
수정 4 요인	365.857	144	.916	.930	.070	.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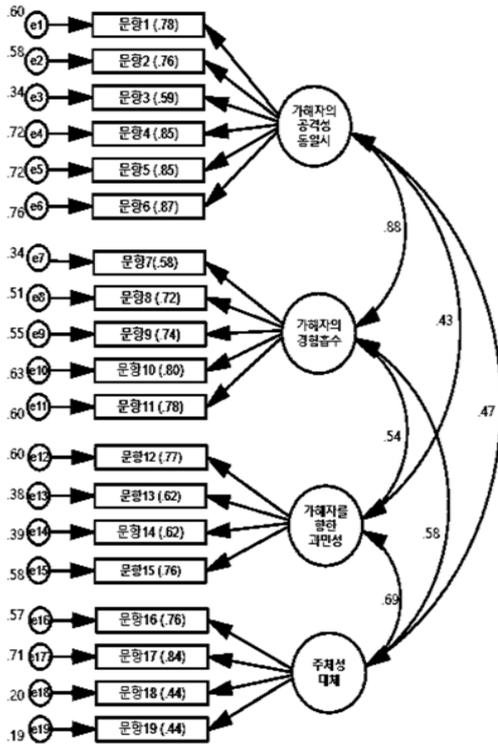


그림 1. K-IAS의 4 요인 모형과 표준화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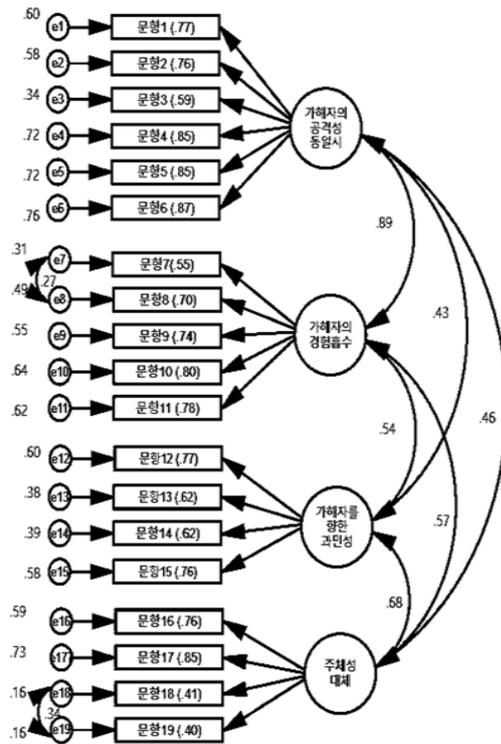


그림 2. K-IAS의 수정 4요인 모형과 표준화 계수

표 4. K-IAS의 전체-하위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N=317)

요인	K-IAS_T	1	2	3	4
K-IAS_전체	1				
1.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	.86***	1			
2. 가해자의 경험 흡수	.87***	.75***	1		
3.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	.70***	.38***	.47***	1	
4. 주체성 대체	.72***	.44***	.48***	.54***	1

주. *** $p < .001$.

성 .78, 주체성 대체 .72를 나타냈다. 탐색적 요인분석 단계에서의 신뢰도 계수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타당도 검증

수렴타당도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K-IAS와 유사한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해리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표 5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K-IAS 전체($\gamma = .40, p < .001$),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

($\gamma=.42, p<.001$), 가해자의 경험 흡수($\gamma=.40, p<.001$),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gamma=.16, p<.01$), 주체성 대체($\gamma=.24, p<.001$)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종합해보면 해리와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 및 주체성 대체는 다소 낮은 크기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요인 및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 가해자의 경험 흡수와는 .40~.42로 중간 크기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기에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변별타당도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K-IAS와 이론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인 공감과 K-IAS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5). 그 결과 K-IAS전체($\gamma=.01, p=.84$),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gamma=-.02, p=.69$), 가해자의 경험 흡수($\gamma=.06, p=.28$), 주체성 대체($\gamma=.02, p=.77$)와 공감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gamma=.14, p<.05$)과는 낮은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바, K-IAS의 변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준거타당도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K-IAS와 불안, 전위된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5

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불안은 K-IAS 전체($\gamma=.33, p<.001$),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gamma=.31, p<.001$), 가해자의 경험 흡수($\gamma=.29, p<.001$),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gamma=.20, p<.001$), 주체성 대체($\gamma=.23,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전위된 공격성 또한 K-IAS 전체($\gamma=.36, p<.001$),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gamma=.37, p<.001$), 가해자의 경험 흡수($\gamma=.29, p<.001$),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gamma=.19, p<.001$), 주체성 대체($\gamma=.26,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불안 및 전위된 공격성과 K-IAS의 상관관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내어 K-IAS의 준거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분타당도

중분타당도 검증을 위해 해리를 통제하고도 K-IAS가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BSI-18척도의 하위요인인 불안과 전위된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1단계에서 해리를 독립변인으로, 2단계에서는 K-IAS를 독립변인에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해리보다 K-IAS가 불안에 대해서는 1.1%($R^2=.343, p<.05$), 전위된 공격성은 3%($R^2=.277, p<.001$)

표 5. K-IAS의 타당도 검증 결과 (N=317)

타당도	변인	K-IAS 전체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	가해자의 경험흡수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	주체성 대체
수렴타당도	해리	.40***	.42***	.40***	.16**	.24***
변별타당도	공감	.01	.02	-.06	.14*	.02
준거타당도	불안	.33***	.31***	.29***	.20***	.23***
	전위된 공격성	.36***	.37***	.29***	.19***	.26***

주. * $p<.05$, ** $p<.01$, *** $p<.001$.

표 6. 불안, 전위된 공격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317)

종속변수	단계	예언변인	R ²	ΔR ²	F	β	t
불안	1단계	DES_T	.332	.332	156.62***	.58	12.52***
	2단계	DES_T	.343	.011	81.84***	.53	10.61***
		IAS_T				.11	2.25*
전위된 공격성	1단계	DES_T	.247	.097	103.59***	.50	10.18***
	2단계	DES_T	.277	.030	60.21***	.42	8.03***
		IAS_T				.19	3.59***

주. * $p < .05$, *** $p < .001$.

더 설명량을 나타내고 있는바, K-IAS는 해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고유의 변량을 보였다.

K-IAS의 집단 간 차이 검정

대인 간 폭력의 중복폭력 여부에 따라 공격자 동일시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Lahav et al., 2019)를 바탕으로, 한 가지의 폭력을 경험한 단일폭력집단과 두 가지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중복폭력집단으로 구분하여 K-IAS의 총점, 평균을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표 7을 통해 결과를 살펴보면, 단일폭력집단과 중복폭력집단 간 K-IAS의 총점 평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1$), 중복폭력집단의 K-IAS의 점수($M=3.48, SD=.98$)가 단일폭력집단($M=3.09, SD=.9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봤을 때 중복폭력집단의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

표 7. 단일폭력집단(n=132)과 중복폭력집단(n=185) 간 K-IAS의 총점 차이 비교

요인	집단 구분	n	평균(M)	표준편차(SD)	t
IAS_T	단일폭력집단	132	3.09	.98	-3.49***
	중복폭력집단	185	3.48	.98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	단일폭력집단	132	2.63	1.24	-3.02**
	중복폭력집단	185	3.07	1.31	
가해자의 경험 흡수	단일폭력집단	132	2.64	1.18	-1.67
	중복폭력집단	185	2.87	1.25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	단일폭력집단	132	3.51	1.22	-3.91***
	중복폭력집단	185	4.05	1.20	
주체성 대체	단일폭력집단	132	3.94	1.17	-2.71**
	중복폭력집단	185	4.30	1.12	

주. ** $p < .01$, *** $p < .001$.

($M=3.07$, $SD=1.31$),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 ($M=4.05$, $SD=1.20$), 주체성 대체($M=4.30$, $SD=1.12$)의 점수가 단일폭력집단의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M=2.63$, $SD=1.24$),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M=3.51$, $SD=1.22$), 주체성 대체($M=3.94$, $SD=1.17$)의 점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공격성 동일시와 주체성 대체($p<.01$),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하위요인 중 가해자의 경험 흡수에서는 단일폭력집단($M=2.63$, $SD=1.24$)과 중복폭력집단($M=2.87$, $SD=1.25$)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p=.096$).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공격자 동일시를 측정하는 도구를 마련하기 위해 Lahav 등(2019)이 개발한 공격자 동일시 척도(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Scale: IAS)를 대인 간 폭력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번안하고, 요인구조를 살펴본 후 수렴타당도와 준거타당도, 변별타당도, 증분타당도의 검증을 통해 타당화를 하였다. 추가로 단일폭력집단과 중복폭력집단에서 K-IAS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결과에 대한 주요 논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판 공격자 동일시 척도(K-IAS)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대인 간 폭력 경험이 있는 대학생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척도와 비교했을 때 문항 변별도와 요인부하량이 낮은 4개의 문항이 삭제되어 총 19문항으

로 도출되었으며, 요인구조는 원척도와 동일하게 4요인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격자 동일시의 주요 측면인 가해자의 경험을 취하는 것, 가해자의 공격성을 동일시하는 것, 자신의 주체성을 가해자의 주체성으로 대체하고, 가해자에게 과민해지는 4가지의 특성을 밝혀낸 선행연구(Lahav et al., 2019)와 일치한 결과이다. 1요인은 6문항으로 가해자의 공격성을 내재화하여 자신의 공격성으로 경험하는 것을 측정하며, ‘공격성 동일시’로 명명하였다. ‘공격성 동일시’의 문항 내용은 1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원척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번 문항(“사람들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과 동일시한다”)이 원척도에서 ‘가해자의 경험 흡수’ 관련 요인에 해당이 되었으나 본 척도에서는 ‘공격성 동일시’요인으로 이동되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는 가해한 사람을 떠올렸을 때 공격성이 연상되어 응답할 수 있으므로 문항 이동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요인은 5개의 문항으로 가해자의 생각, 감정, 행동, 욕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측정하고, ‘가해자의 경험 흡수’로 명명하였다. 원척도와 비교했을 때 2번 문항이 ‘공격자 동일시’요인으로 이동되었고, 다른 문항들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요인은 4개의 문항으로 가해자의 경험을 과민하게 느끼고, 알아채는 것을 반영하며,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으로 명명하였다. 문항 내용은 원척도와 동일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4요인은 4개의 문항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가해자의 주체성으로 대체시키는 것을 측정하며, ‘주체성 대체’로 명명하였다. 문항 내용은 2번 문항(“때로는 사람들이 필요와 욕망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의 필요와 욕망과 비슷하다”)이 원척도에서는 ‘가해자의 경험 흡수’ 관련 요인에 묶였으나 본 척도에

서는 ‘주체성 대체’ 요인으로 이동되었다. 동일시의 과정은 이론적으로 대상의 측면을 받아들이고, 대상의 이미지를 자신의 주체성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동일시 대상과 비슷한 경험을 한다(Hamilton, 1990/2007). 이러한 맥락에서 2번 문항의 하위요인 이동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한국판 공격자 동일시(K-IAS)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K-IAS의 전체와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척도 및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 수치가 .70 이상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적합치도 수치가 .70이상이면 수용이 가능하고 .80 이상이면 좋은 신뢰도라고 볼 수 있으며(탁진국, 2007), 이에 부합하므로 K-IAS가 공격자 동일시를 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로운 도구임을 시사한다.

셋째, 한국판 공격자 동일시(K-IAS)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준거타당도, 증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우선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K-IAS와 해리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K-IAS와 해리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K-IAS가 대인 간 폭력으로 인한 외상의 대표적인 반응인 해리와 유사한 구인을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격자 동일시와 해리가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 결과이다(Lahav et al., 2019; Lahav, 2021). 대인 간 폭력을 경험할 때 피해자는 견딜 수 없는 폭력 경험에서 생존을 위해 자신의 인식과 감정을 분리하고 자신의 주체성으로부터 해리하여 그 빈자리를 가해자의 경험으로 채운다(Frankel, 2002). 즉, 해리와 공격자 동일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해리와 공격자 동일시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변별타당도의 검증을 위해 K-IAS와 공감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일시와 공감의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는 연구(김영란, 2004)를 지지한다. K-IAS의 하위요인 중에서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은 공감과 아주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대인 간 폭력 경험을 한 사람은 정서적 반응과 관련 있으며, 적대적인 표정에 민감하고, 전반적인 얼굴 표정에 편향되게 인식한다는 연구(김은경, 이정숙, 2009; 김환, 한수미, 2015; Pollak & Kistler, 2002)와 일맥상통한다. 즉, 공감에서 타인의 지각 세계에 민감해지고, 감지하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김영란, 2004), 공감의 일부 과정과 공격자 동일시 안에서 일어나는 가해자의 감정에 민감하고, 파악하는 과정과 유사하여 아주 낮은 상관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공격자 동일시와 공감은 유사해 보이지만 구별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판 공격자 동일시(K-IAS)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K-IAS와 불안,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K-IAS와 불안, 전위된 공격성이 유의하게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준거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격자 동일시와 불안이 연관이 있다고 설명한 연구(Amir, 2016; Ferenczi, 1933), 공격자 동일시와 타인을 향한 공격성이 정적 상관을 보인 연구 결과(Lahav et al., 2022)를 지지한다. 또한, 대인 간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가해자에게 직접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이나영 외, 2017; 이자영, 2021)와도 맥을 같이 한다. 대인 간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가해자 앞에서 자신의 주체로 존재하지 못하면서 불안을 경험한다. 불안이 극

에 달할 경우, 공격자와 동일시하여 불안을 없애고자 한다(Amir, 2016; Ferenczi, 1933; Prior, 1996/2016).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공포에 떠는 희생자이면서 공격자의 모델을 내면화하여 가해자와 희생자의 역할을 반복한다. 가해자의 역할로 있을 때는 다른 대상에게 공격하는 행동을 보이는데,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힘이 약한 대상에게 공격성을 표출한다고 볼 수 있다(이자영, 2021; Lahav, 2021; Lahav et al., 2022; Prior, 1996/2016). 그 다음으로 증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K-IAS와 불안, K-IAS와 전위된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K-IAS와 유사한 개념인 해리를 통제하고도 추가적인 설명력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해리를 통제해도 K-IAS가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으며, 이는 K-IAS가 불안과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에서 해리를 제외해도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일폭력집단과 중복폭력집단 간에 K-IAS의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단일폭력집단과 중복폭력집단 간에 K-IAS의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복폭력 집단에서 K-IAS의 하위요인인 ‘공격성 동일시’, ‘가해자를 향한 과민성’, ‘주체성 대체’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해자의 경험 흡수’는 단일폭력집단과 중복폭력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 간 중복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공격자 동일시가 높게 나온 연구(Lahav et al., 2019)와 대인 간 폭력 피해 경험과 재피해의 관계에서 공격자 동일시의 영향이 있다는 연구(Lahav, 2021; Lahav et al., 2022; Lahav, 2023)를 지지한다. 또한, 대인 간 폭력이 심각하거

나 만성화되어 두려움이 극에 달할수록 가해자에게 과민해지고, 주체성을 잃어버려 자기 지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Ferenczi, 1933; Frankel, 2002). 이렇듯 대인 간 중복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단일폭력을 경험한 사람보다 공격자 동일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해자의 공격성을 동일시하고, 자신의 주체성이 가해자 주체성으로 대체되는 과정이 견고해지면서 가해자에게 더욱 민감해진다고 볼 수 있다.

위 연구 결과들은 원칙도의 공격자 동일시가 한국 문화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K-IAS가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부재했던 공격자 동일시의 측정 도구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공격자 동일시는 대인 간 폭력 관련 이론과 임상에서 관심을 받아온 개념이지만,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방어기제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어서 그간 척도가 개발되지 않았다. 최근 Lahav 외 연구진(2019)이 공격자 동일시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로 검증된 바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공격자 동일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기 위해 척도를 타당화 하였으며, 대인 간 폭력 경험자가 가해자의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대인 간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대인 간 폭력 경험자가 폭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폭력의 관계를 재현시키는 역동을 밝히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둘째, 대인 간 폭력 경험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격자 동일시와 해리, 불안, 전위된 공격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면서 공격자 동일시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후속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단일폭력집단과 중복폭력집단 사이에 공격자 동일시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공격자 동일시와 재피해의 연관성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넷째, 한국판 공격자 동일시 척도를 마련함으로써 임상 장면에서 대인 간 폭력 피해 내담자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인 간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부적응을 경험하고, 대인 간 폭력에 재희생화가 되거나 가해 행동을 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겪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공격자 동일시를 하면서 폭력 위협에 노출되게 된다. 공격자 동일시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미묘하고, 자동적으로 나타나므로 상담 초기에 사례개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공격자 동일시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여 상담의 위험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Frankel, 2002) 상담자는 이를 자각하고, 의식화하여 역기능적인 심리적 기제를 적응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 간 폭력을 경험한 대학생 집단만을 살펴본 것이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로 다른 연령대의 집단을 대상으로 교차타당화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단일폭력과 중복폭력을 조사할 때 폭력 피해의 첫 시기와 지속기간, 가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이러한 요인은 공격자 동일시의 만성화와 강도에 영향을 끼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Lahav et al., 2019).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측정할 때,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추후에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통해 척도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넷째, 대인 간 폭력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를 표집하기 위해서 Foa 외 연구진(1997)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의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선별하였다. 그러나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은 다른 사람에게 비교적 관찰되지만, 정서적 폭력은 외관 상 관찰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변은실, 이주영, 2016, 이혜숙, 김영근, 2022). 이처럼 대인 간 폭력의 유형에 따라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대인 간 폭력을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타당화를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친밀한 관계폭력, 직장폭력, 군대폭력 등과 같이 다양한 폭력으로 확대하여 공격자 동일시의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단일폭력집단과 중복폭력집단 사이에 공격자 동일시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공격자 동일시가 재피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에는 대인 간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는 과정에서 공격자 동일시의 영향이 있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한다면 대인 간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영란 (2004). Rogers 및 Kohut가 정의하는 공감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553-569.
- 김영운 (2014).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뇌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4), 385-408.
- 김윤희, 김진숙 (2017). 공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8(5), 61-84.
- 김은경, 이정숙 (2009). 아동의 학대경험이 정서와 인지적 편향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18.
- 김은희, 이인혜 (2016).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 특성의 관계: 대상적 자기 손상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003-1022.
- 김재엽, 류원정, 오세현, 이 현 (2014). 가정폭력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여성의 생애주기 상 재피해 영향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9(1), 81-101.
- 김재엽, 송아영, 한샘 (2010). 청소년 자녀의 가정폭력목격경험과 자녀학대피해경험 중 복피해에 따른 우울 및 폭력비행행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17(12), 1-26.
- 김재엽, 장대연, 김수지, 조현지 (2019). 학교폭력경험이 군 폭력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 - 학교폭력경험 유형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회복지학, 12(1), 5-30.
- 김재은, 이근후, 김정규, 박영숙 (1991). 이화방 어기제검사. 서울: 하나의학사.
- 김준범 (2019). 초기청소년기 가정 내 학대피해와 가정 외 폭력피해 및 자살시도: 다중폭력피해 관점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30(2), 213-239.
- 김혜란 (2007). 청년기 여성의 피학적 경향성과 분리-개별화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김 환, 한수미 (2015). 어릴 적 외상 경험이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251-274.
- 노태용, 김영옥, 서혜수, 박형배, 이광현, 김창수, 장상렬, 김진성 (1995). 대구지역 여고생들의 성(性)적 학대 경험에 관련된 신경증에 관한 연구. 영남의대학술지, 12(1), 113-123.
- 류정희, 이주연, 정익중, 송아영, 이미진 (2017).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경은, 유영권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11-742.
- 박기쁨, 이상우, 장문선 (2012). 대학생 집단을 통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18 (BSI-18)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2), 507-521.
- 박미옥, 조영주 (2014). 아동·청소년의 외상경험이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1(1), 23-43.
- 박성희 (1994).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 박제민, 최병무, 김명정, 한홍무, 유승윤, 김성환, 주영희 (1995). 한국판 해리경험척도의 표준화 연구 (1). 정신병리학, 4(1), 105-125.
- 변은실, 이주영 (2016).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거부민감성의 매개 효과. 한

- 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125-1149.
- 송지준 (2015).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 AMOS 통계분석방법. 파주: 21 세기사.
- 안현의 (2007). 복합외상 (complex trauma) 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05-119.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의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이나영, 하수홍, 장문선 (2017).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와 전위공격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2), 203-222.
- 이순목, 윤창영, 이민형, 정선호 (2016). 탐색적 요인분석: 어떻게 달라지나? [Exploratory Factor Analysis: How has it Changed?].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17-255.
- 이윤연, 장현아 (2017).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191-209.
- 이자영 (2021). 아동기 외상,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이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9(9), 385-392.
- 이주연 (2021). 학대의 세대 간 전이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601-1601. 미간행.
- 이지민, 홍창희 (2008). 성매매 여성들의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553-580.
- 이하나 (2009). 전위된 공격성 집단의 특성에 관한 탐색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 김영근 (2022). 성장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성인기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3), 793-818.
- 장승민 (2015). 리커트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사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1079-1100.
- 장진이 (2010). 반복적 대인간 외상 경험자의 자기체계 손상과 심리적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옥희 (2012). 여성의 가정폭력 가해 맥락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2(2), 109-147.
- 정한별, 심은정 (2022). 아동기 외상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 자전적 기억 과일반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7(1), 61-83.
- 조민경, 조한익 (2019). 가정학대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1), 17-38.
- 조정은, 이자영 (2022). 아동기 외상이 데이트 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 거부 민감성의 매개 효과. 인문사회 21, 13(1), 215-230.
- 탁진국 (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통계청 (2021). 사망원인통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보고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한성희 (2002). 아동기 외상의 정신과적 개관.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3(1), 3-14.
- Amir, D. (2016). Hermetic narratives and false analysis: A unique variant of the mechanism of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The Psychoanalytic Review*, 103(4), 539-549.
- Arseneault, L. (2017). The long term impact of bullying victimization on mental health. *World*

- Psychiatry*, 16(1), 27-28.
- Bernstein, E. M., & Putnam, F. W. (1986).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dissociation scal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4, 727-735.
- Cattell, R. B. (1966). The scree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2), 245-276.
- Courtois, C. A. (2008). Complex trauma, complex reactions: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5(1) 86-100.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Cyr, K., Chamberland, C., Clément, M.-È., Lessard, G., Wemmers, J. A., Collin-Vézina, D., & Damant, D. (2013). Polyvictimization and victimization of children and youth: Results from a populational survey. *Child Abuse & Neglect*, 37(10), 814-820.
- Daisy, N. V., & Hien, D. A. (2014). The role of dissociation in the cycle of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9(2), 99-107.
- Davis, M. H. (1980).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Edwin Mellen Press.
- Denson, T. F., Pedersen, W. C., & Miller, N. (2006). The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6), 1032-1051.
- Derogatis, L. R. (2001). Brief Symptom Inventory(BSI)-18.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Minneapolis: NCS Pearson, Inc.
- Ferenczi, S. (1933). *Confusion of tongues between adults and the child* (E. Mosbacher, Trans.). In M. Balint (Ed.), *Final contributions to the problems and methods of psycho-analysis*. 156-167. London, England: Karnac Books.
- Finkelhor, D., Ormrod, R. K., & Turner, H. A. (2007). Re-victimization patterns in a national longitudinal sample of children and youth. *Child Abuse & Neglect*, 31(5), 479-502.
- Foa, E. B., Cashman, L., Jaycox, L., & Perry, K. (1997). The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9(4), 445.
- Frankel, J. (2002). Exploring ferenczi's concept of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Its role in trauma, everyday life, and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Psychoanalytic Dialogues*, 12, 101-139.
- Frankel, J. (2004).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and the 'normal traumas': Clinical implications. *International Forum of Psychoanalysis*, 13, 78-83.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New Jersey: Pearson Prentice.
- Herman, J. L. (1992).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Basic Books.
- Howell, E. F. (2014). Ferenczi's concept of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Understanding dissociative structure with interacting victim and abuser selfstate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74(1), 48-59.
- Hamilton, N. G. (2007).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 (김진숙, 김창대, 이지연 역). 서울: 학지사. (원전 출판 1990년).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aiser, H. F. (1960).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computers to factor analysi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1), 141-151.
- Krug, E. G., Mercy, J. A., Dahlberg, L. L., & Zwi, A. B. (2002). The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The Lancet*, 360(9339), 1083-1088.
- Lahav, Y., Talmon, A., & Ginzburg, K. (2019). Knowing the abuser inside and out: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scal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19-20), 9725-9748.
- Lahav, Y. (2021). Suicidality in childhood abuse survivors - the contribution of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5, 804-810.
- Lahav, Y. (2023). Hyper-sensitivity to the perpetrator and the likelihood of returning to abusive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8(1-2), 1815-1841.
- Lahav, Y., Allende, S., Talmon, A., Ginzburg, K., & Spiegel, D. (2022).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and inward and outward aggression in abuse surviv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5-6), 2705-2728.
- McWilliams, N. (2008). 정신분석적 진단: 성격구조의 이해 (정남운, 이기련 역). 서울: 학지사. (원전 출판 1994년).
- Melsky, R. E. (2004).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How crime victims often cope with trauma.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73, 16-19.
- Pelcovitz, D., Van der Kolk, B., Roth, S., Mandel, F., Kaplan, S., & Resick, P. (1997). Development of a criteria set and a structured interview for disorders of extreme stress (SID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1), 3-16.
- Pollak, S. D., & Kistler, D. J. (2002). Early experience i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categorical representations for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99, 9072-9076.
- Rosenberg, T., Lahav, Y., & Ginzburg, K. (2023). Child abuse and eating disorder symptoms: Shedding light on the contribution of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Child Abuse & Neglect*, 135, 105988.
- Prior, S. (2016). 심각한 외상과 대상관계 (김소희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출판 1996년).
- Widom, C. S., & Maxfield, M. G. (2001). *An update on the 'cycle of violence' research in brief*.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Widom, C. S., Czaja, S. J., & Dutton, M. A. (2008). Childhood victimization and lifetime revictimization. *Child Abuse & Neglect*, 32(8), 785-796.

원고접수일 : 2023. 03. 21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5. 19
게재결정일 : 2023. 07. 05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Scale

Hye-sun Lim

Jung-yoon Kim

Hye-young Hong

Myongji University Doctoral Student

Myongji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Scale (IAS; Lahav et al., 2019). Item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on a sample of 200 university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interpersonal violence, resulting in the removal of four items. The K-IAS comprised 19 items grouped into four subscales: 'Identifying with the Perpetrator's Aggression', 'Adoption of the Perpetrator's Experience', 'Replacement of Agency', 'Hyper-Sensitivity to the Perpetrat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ssessment, and validity examination were carried out on a separate sample of 317 university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interpersonal violence. These analyses confirmed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IAS and established its reliability. Convergent, discriminant, criterion, and incremental validity were tested through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confirming the K-IAS as a valid tool. The K-IAS scor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that had experienced single versus multiple instances of violence. The study'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proposed.

Key words :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Interpersonal Violence, Defense Mechanism, Scale Validation